

## 경기

-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 큰 폭의 감소세 완화
  - 4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로 감소폭 둔화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대형마트의 판매호조로 2.9%증가
  -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백화점 6.0%, 대형마트 3.6%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와 운동, 오락, 식료품 판매 호조로 6.2% 증가하였으며, 백화점의 경우 화장품, 귀금속류의 판매호조로 6.0% 증가
- 서울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보합, 전년동기대비 3%대 유지
  -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월대비 보합, 전도시 평균인(0.0%)과 같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하였으며, 신선식품지수 역시 전월대비 1.8% 하락하였음

## 고용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1.3%p로 작년 12월 이후 감소세 지속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한 61.3%로 나타남
- 5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각각 -2.3% 감소
  - 5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5천명(-2.3%) 감소한 4,855천명인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2천명(-2.2%), 여자는 54천명(-2.5%)이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7%)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1.7% 플러스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4.6%로 큰폭으로 감소
- 서울의 실업률 4.7%는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전국대비 0.9%p 높음
  - 5월 서울 실업률, 남자는 5.2%, 여자는 4.0%

## 부동산

- 4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4,10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7% 감소
  - 공공부문(10.3%)은 송배전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민간부문(-85.5%)은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기준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강남지역(0.2%)은 하락지역이 없이 호전되는 분위기이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4월(0.4%)에 비해 축소됨
  - 강북지역(0.0%)은 강남지역 소폭 상승에 비해 매수세 부진으로 보합권에 머무름
- 5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전반적인 상승세 완화
  - 강남지역(0.3%)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는 완화된 모습이며 서초구(0.7%)와 강남구(0.7%)가 상승세를 이어감
  - 강북지역(0.1%)에서는 성동구(0.5%)와 광진구(0.5%)가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금융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4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1조 8,858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0.09% 증가
- 4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66개로 전월대비 19.7%(307개) 증가
- 4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4개로 전월보다 8.7%(8개) 감소
- 5월 서울시 수입과 수출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서울의 수출은 22.3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5.1% 감소. 수출 1순위는 편직물,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고무제품 등의 순
  - 5월 서울의 수입은 55.2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28.9%의 감소율을 기록. 수입 1순위는 반도체로 나타났고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순

## | 생 · 산 |

### 4월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감소세 완화

#### ■ 4월 전국 광공업 생산 전년동월대비 -8.2%로 감소폭 둔화

-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선박 등 기타운송장비는 증가하였으나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서 부진하여 8.2% 감소, 전월대비로는 1.2%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은 부진하였으나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호조로 1.6% 증가, 전월대비 2.7% 증가

#### ■ 4월 서울의 제조업 산업생산지수 -1.3%로 전국대비 큰 폭의 감소세 대폭 완화

- 4월 중 서울시 산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3%로 감소폭 둔화
- 전년동월대비로 기계장비,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등은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기장비 등은 감소
- 2008년 12월 이후 큰 폭의 감소세 대폭완화

####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 경공업 부문 감소세 지속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1%로 지난해 12월 이후 지속되던 마이너스 성장에서 플러스 성장세로 반등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7.4%로, 마이너스 감소세 지속됨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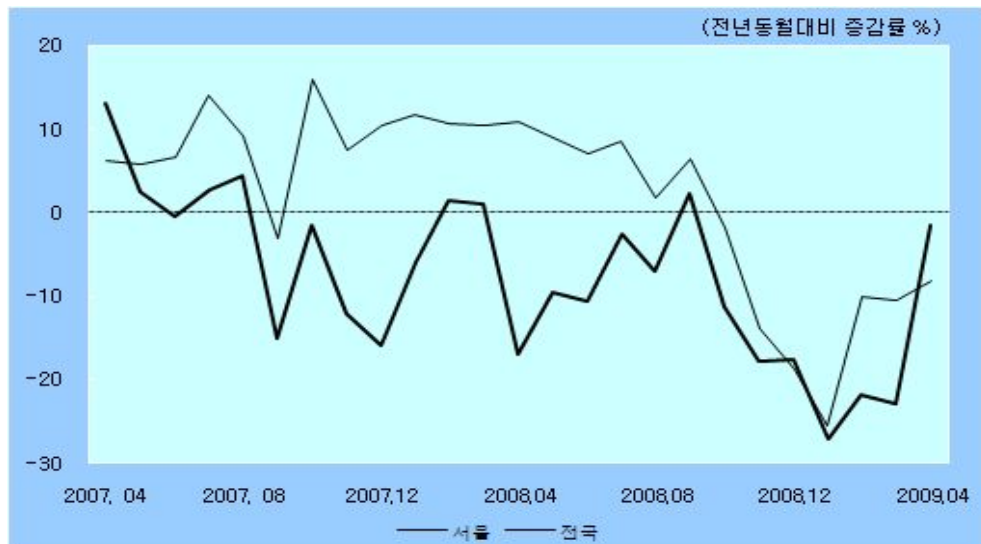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전 년 동 월 비	전국	10.8 (-1.3)	-18.7 (-9.5)	-25.5 (-5.7)	-10.0 (6.3)	-10.5 (14.6)	-8.2 (1.2)
	서울 (제조업)	-17.0 (-10.4)	-17.5 (-1.9)	-27.1 (-11.6)	-21.7 (-3.9)	-22.8 (9.3)	-1.3 (14.5)
	중공업	-37.0 (-21.4)	-28.1 (7.4)	-44.9 (-31.5)	-46.3 (0.0)	-40.8 (13.9)	10.1 (46.2)
	경공업	0.1 (-3.1)	-10.0 (-6.4)	-16.6 (-0.3)	-3.5 (-5.4)	-11.0 (7.4)	-7.4 (0.8)

주: (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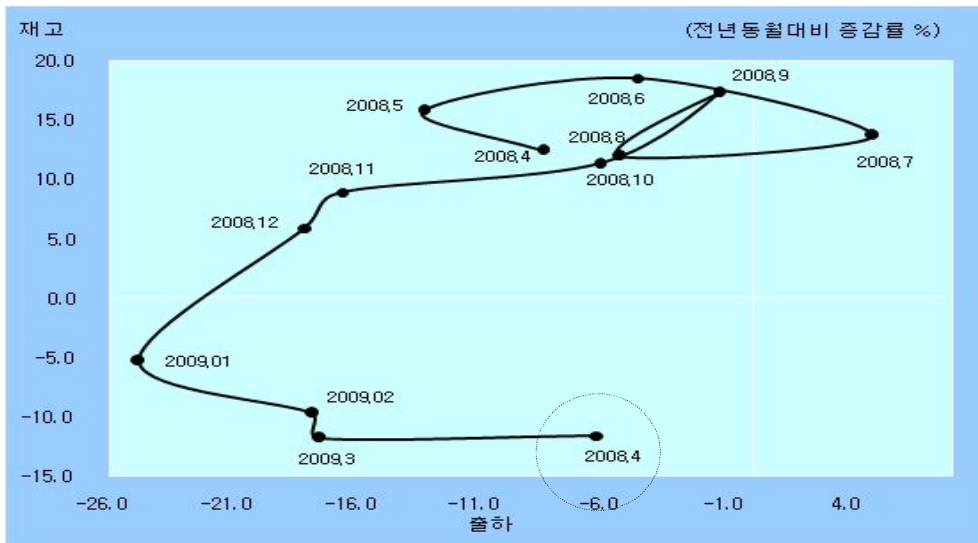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 출하 · 재고 순환 |

4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감소 단계

- 서울지역의 4월 중 생산자제품 재고지수는 144.5로 전년동월대비 11.6% 감소
  - 업종별로는 식료품, 섬유제품 등이 증가하였으나, 의복 및 모피,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 1차금속 등에서 감소, 재고율은 148.5로 전월대비 2.7%p 증가
  -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97.3(2005=100)으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 업종별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등은 증가하였으나, 전기장비 등에서 감소
  - 전월대비 출하는 증가하고 큰 변동을 보이고 있지 않아 재고감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 · 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 · 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전월대비 재고 증감을 중공업 큰폭 증가, 경공업 소폭 감소

- 4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0.7%로 전월대비 6.2%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부문의 재고율은 148.5%로 전월대비 2.7%p 증가함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18.6%p 증가한 148.5%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3.3%p 감소한 145.3%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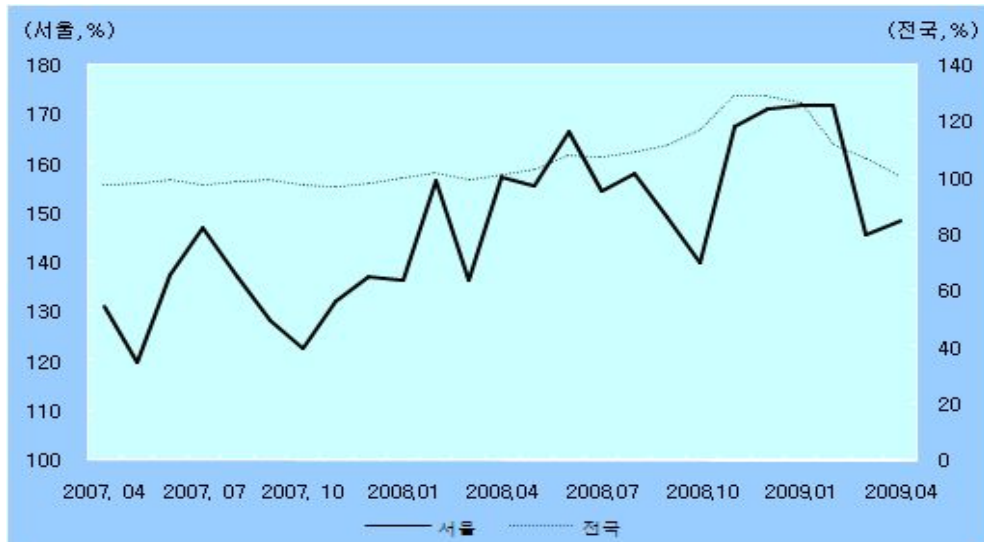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4월	12월	1월	2월	3월p	4월p	
재고율	전국	101.1	129.2	126.7	112.1	106.9	100.7	-6.2
	서울	157.4	171.1	171.7	171.8	145.8	148.5	2.7
	중공업	164.4	150.4	192.4	183.2	129.9	148.5	18.6
	경공업	152.4	177.6	158.3	161.6	148.6	145.3	-3.3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 소 · 비 |

##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 전국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4.8% 증가

- 전국의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 4.8% 증가로 3월 이후 계속 플러스 증가
- 유형별로는 오락, 취미, 경기용품 등의 준내구재가 0.7%증가 하였고, 업체별로는 무점포판매 2.3%, 백화점 (0.9%) 증가

## ■ 서울 대형소매점의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5.0% 증가

- 4월 대형소매점 판매액은 1조4,229억으로 전국대비 34.2%의 구성비를 보임
- 전년동월대비로는 백화점 6.0%, 대형마트 3.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0% 증가
- 백화점의 경우 전년동월대비로는 화장품, 음식료품, 귀금속류 등의 판매호조로 6.0% 증가, 전월대비로는 정기세일로 인한 의복, 신발, 가방 등 패션상품 및 주방용품, 운동·오락용품 판매호조로 6.2% 증가
- 대형마트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사업체수 증가(전년 60개 → 금년 65개)로 운동·오락용품, 음식료품, 화장품의 판매호조로 3.6%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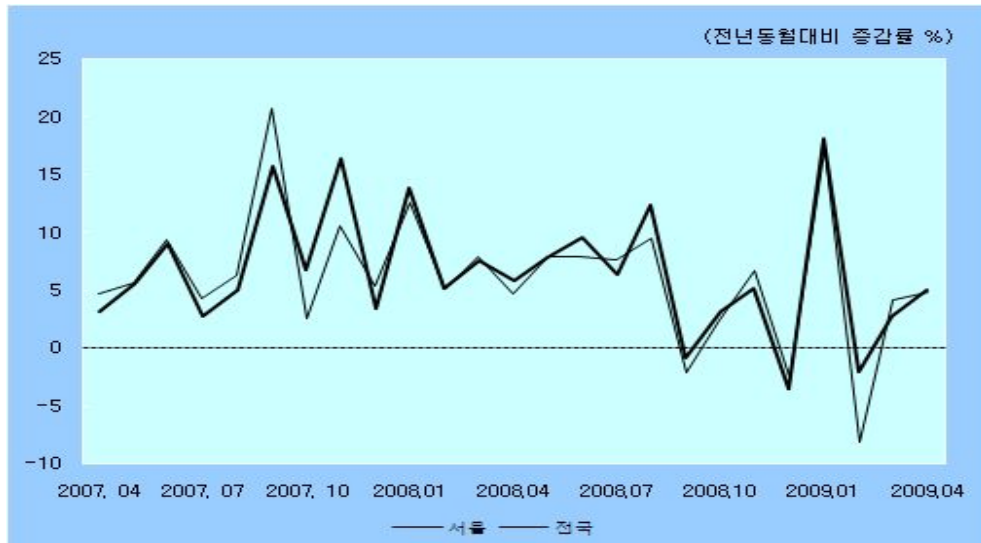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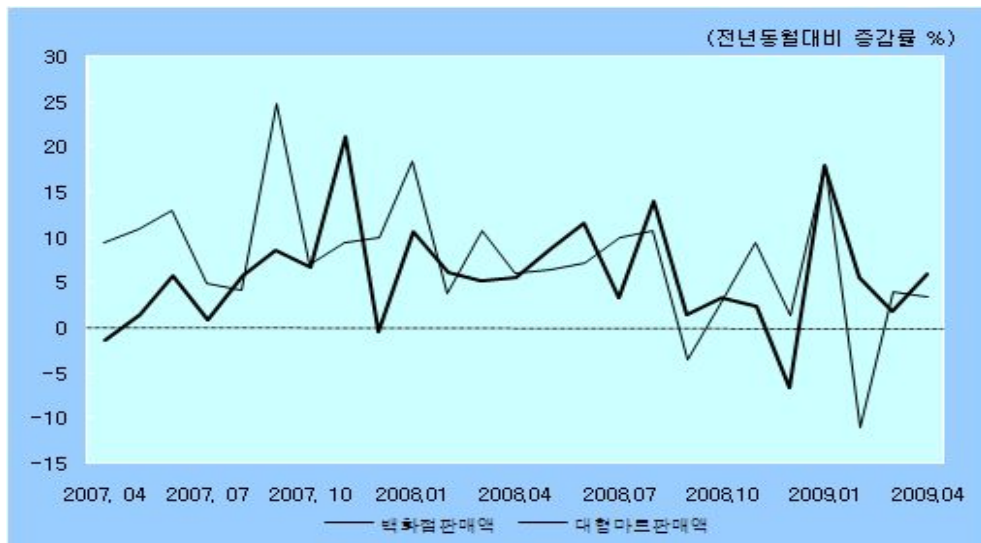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4월	12월	1월	2월p	3월p	4월p
판매액	전국	3968.6 (4.7)	4404.3 (-2.6)	4779.3 (17.2)	3754.6 (-8.2)	4296.4 (4.1)	4158.2 (4.8)
	서울	1354.6 (5.8)	1519.2 (-3.5)	1631.9 (18.1)	1273.4 (-2.1)	1404.2 (2.8)	1422.9 (5.0)
	백화점	793.1 (5.6)	898.0 (-6.6)	946.3 (18.0)	739.9 (5.5)	791.9 (1.8)	841.0 (6.0)
	대형마트 (할인점)	561.4 (6.1)	621.2 (1.4)	685.6 (18.2)	533.5 (-10.9)	612.2 (4.1)	581.7 (3.6)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sup>2</sup>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 물 · 가 |

## 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포함

##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2.7로 전월대비 포함, 전년동월대비 2.7%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부문 0.8%, 주거 및 수도광열부문 0.3%, 교통부문 0.6%, 교양오락부문이 0.2% 각각 하락, 보건으로 부문, 통신부문, 교육부문은 포함
- 의복신발부문 2.6% 상승 등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1.8% 상승

## ■ 5월 서울의 소비자물가 전월동월대비 3.0% 상승

-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12.2로 전월대비 포함, 전년동월대비 3.0% 상승
- 7개 도시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인천(-0.2%), 대전(-0.1%)은 하락하고 그 외 지역은 전월대비 포함세를 나타냄
- 전월에 비해 의복신발(2.5%), 가구집가가사용품(0.3%), 외식숙박(0.2%) 부문 등에서 상승을 나타내었으나, 식료품비주류음료, 교통, 주거 및 수도광열, 교양오락 부문에서는 하락, 그 외 부문은 포함

## ■ 서울의 생활물가 및 신선식품지수 전월대비 각각 -0.2%, -1.8%하락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전국:-0.2%)하락, 전년동월대비 2.4%(전국:1.8%) 상승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1.8%(전국:-1.3%) 하락, 전년동월대비 14.4%(전국:15.7%)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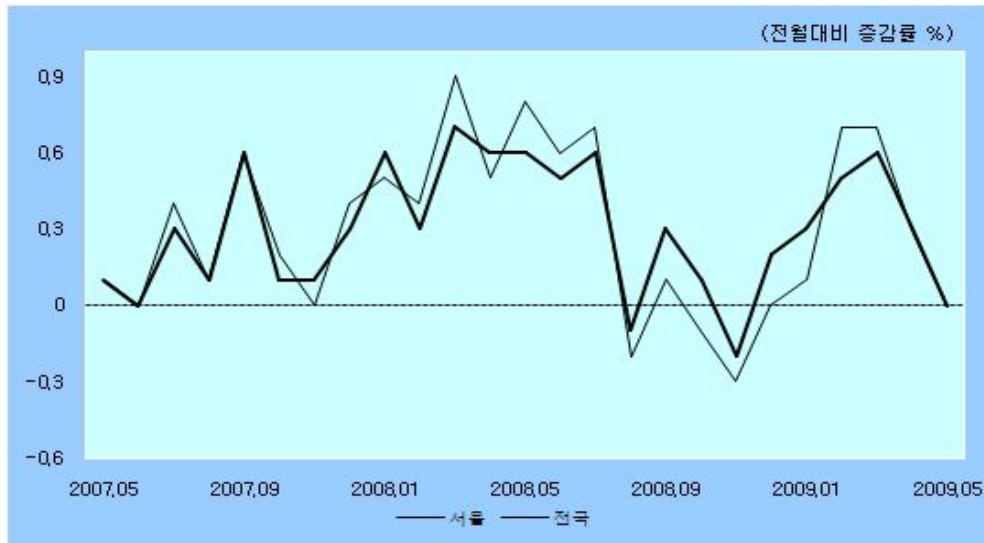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월비	전국		0.8 (4.9)	0.0 (4.1)	0.1 (3.7)	0.7 (4.1)	0.7 (3.9)	0.3 (3.6)	0.0 (2.7)
	서울		0.6 (4.1)	0.2 (4.1)	0.3 (3.7)	0.5 (3.9)	0.6 (3.9)	0.3 (3.7)	0.0 (3.0)
	상품 성질별	상품	1.5 (5.9)	0.3 (4.6)	0.5 (4.4)	1.2 (5.6)	1.1 (6.5)	0.4 (6.1)	-0.1 (4.4)
		서비스	0.2 (3.1)	0.1 (3.7)	0.1 (3.4)	0.2 (3.2)	0.4 (2.6)	0.2 (2.5)	0.0 (2.3)
	생활물가		0.7 (4.7)	-0.4 (2.9)	0.4 (2.9)	0.5 (3.2)	0.9 (3.2)	0.7 (3.3)	-0.2 (2.4)
	신선식품		-1.0 (-5.1)	3.4 (-7.9)	7.3 (0.3)	1.6 (2.1)	3.2 (10.2)	3.6 (15.4)	-1.8 (14.4)

주: (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인구 감소세 지속

## ■ 5월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1%로 하락세 지속

- 전국 5월의 15세 이상인구는 40,02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7천명(1.2%)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 24,6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4천명(-0.1%)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455천명으로 109명(0.8%)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203천명으로 144천명(-1.4%)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6%로 전년동월대비 0.8%p(62.6% → 61.6%) 하락하였음

## ■ 5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61.6%로 전년동월대비 1.3%p 감소

- 5월 15세이상 인구는 8,31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명(0.8%)이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5,09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6천명(-1.3%)이 감소
- 경제활동참가율은 61.3%로 전년동월대비 1.3%p 하락
- 가사 또는 통학 등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3,22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3천명(4.3%)이 증가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0.6 (0.8)	0.2 (-2.2)	-0.1 (-1.3)	-0.2 (-0.2)	-0.2 (1.7)	-0.2 (1.6)	-0.1 (0.8)
	서울	-0.3 (0.3)	-1.4 (-0.8)	-1.4 (0.1)	-2.0 (-1.3)	-1.5 (1.6)	-1.2 (0.3)	-1.3 (0.2)
	남자	0.1 (0.7)	-1.1 (-1.1)	-0.8 (0.3)	-1.2 (-0.9)	-0.8 (1.3)	-0.9 (0.1)	-0.9 (0.7)
	여자	-0.8 (-0.4)	-2.0 (-0.5)	-2.3 (-0.3)	-3.1 (-1.7)	-2.4 (2.2)	-1.6 (0.6)	-1.8 (-0.6)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4	60.4	59.5	59.3	60.2	61.2	61.6
	서울	62.6	60.9	60.9	60.1	61.1	61.2	61.3
	남자	74.5	72.4	72.5	71.8	72.7	72.7	73.2
	여자	51.3	50.1	49.9	49.1	50.1	50.4	50.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취·업·자 |

5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마이너스 감소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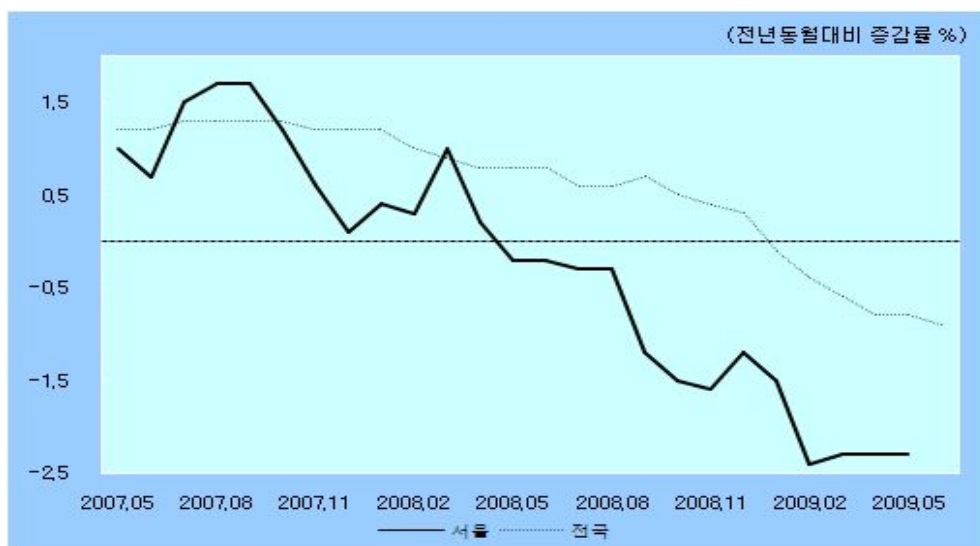
- **전국의 5월 고령층 취업자는 증가한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마이너스 성장세 지속**
  - 5월 취업자는 23,72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19천명(-0.9%)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4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천명(-0.1%) 감소하였고, 여자는 9,872천명으로 211천명(-2.1%)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증가하였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7%로 꾸준히 마이너스 성장세 소폭 둔화, 고령층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1.0% 증가하였음
  
- **5월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및 청년층 취업자 수 각각 -2.3% 감소**
  - 2009년 5월 취업자는 4,8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5천명(-2.3%)이 감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04천명, 여자는 2,0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62천명(-2.2%), 여자는 54천명(-2.5%)이 각각 감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4.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83천명(4.7%)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건설업 69천명(-15.8%), 제조업 100천명(-15.5%), 도소매·음식숙박업 27천명(-2.0%), 전기·운수·통신·금융업 2천명(-0.2%)은 각각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하였으며, 전국대비(-2.7%) 0.4%p 낮은 것으로 나타남
  - 55-59세의 고령층 취업자는 꾸준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층 취업자는 큰폭으로 감소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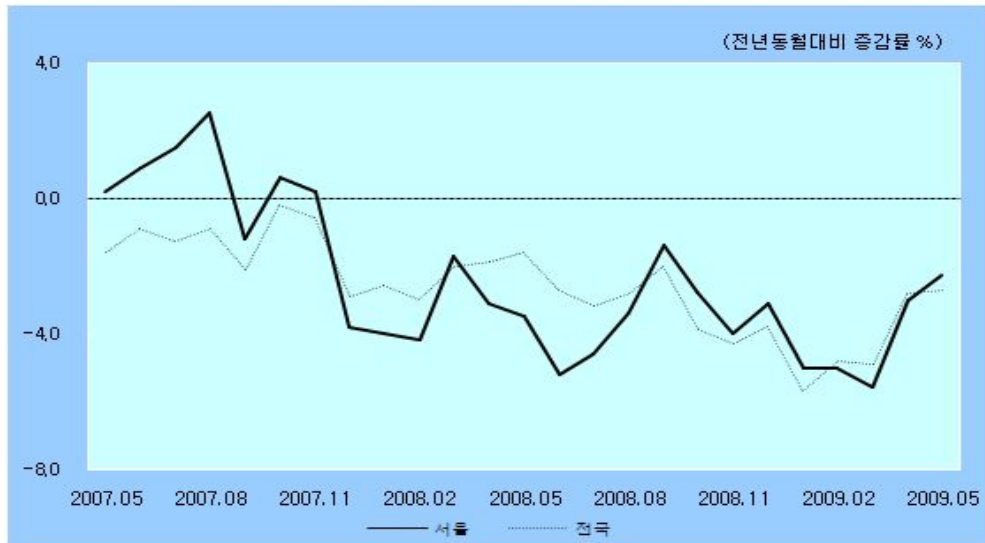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취업자	전국	0.8 (1.0)	-0.1 (-2.4)	-0.4 (-1.7)	-0.6 (-0.5)	-0.8 (1.6)	-0.8 (1.8)	-0.9 (0.8)
	서울	-0.2 (0.4)	-1.2 (-0.9)	-1.5 (-0.3)	-2.4 (-2.0)	-2.3 (1.6)	-2.3 (0.3)	-2.3 (0.4)
	남자	0.2 (1.1)	-1.5 (-1.3)	-1.4 (-0.1)	-2.2 (-1.7)	-2.6 (1.1)	-2.4 (0.4)	-2.2 (1.3)
	여자	-0.7 (-0.4)	-0.9 (-0.4)	-1.6 (-0.6)	-2.8 (-2.3)	-1.9 (2.3)	-2.2 (0.1)	-2.5 (-0.7)
청년층 취업자	전국	-1.6 (1.5)	-3.8 (-1.0)	-5.7 (0.5)	-4.8 (-1.6)	-4.9 (-1.3)	-2.8 (3.0)	-2.7 (1.6)
	서울	-3.5 (1.4)	-3.1 (-2.2)	-5.0 (1.6)	-5.0 (-3.2)	-5.6 (-0.2)	-3.0 (3.8)	-2.3 (2.1)
고령층 취업자	전국	-3.4 (1.4)	1.3 (-8.4)	1.3 (-4.3)	1.6 (0.7)	2.1 (7.5)	8.6 (4.6)	1.0 (2.0)
	서울	1.5 (3.4)	-1.0 (-2.2)	0.1 (0.1)	0.4 (-1.4)	1.8 (5.2)	-1.9 (0.5)	-1.7 (-0.3)
	55-59세	6.5 (3.0)	1.1 (-2.0)	4.0 (2.4)	3.4 (-0.6)	6.6 (5.1)	6.3 (0.6)	1.7 (-1.4)
	60세 이상	-2.3 (3.7)	-2.5 (-2.5)	-3.1 (-1.8)	-2.1 (-2.1)	-2.2 (5.4)	-1.7 (0.5)	-4.6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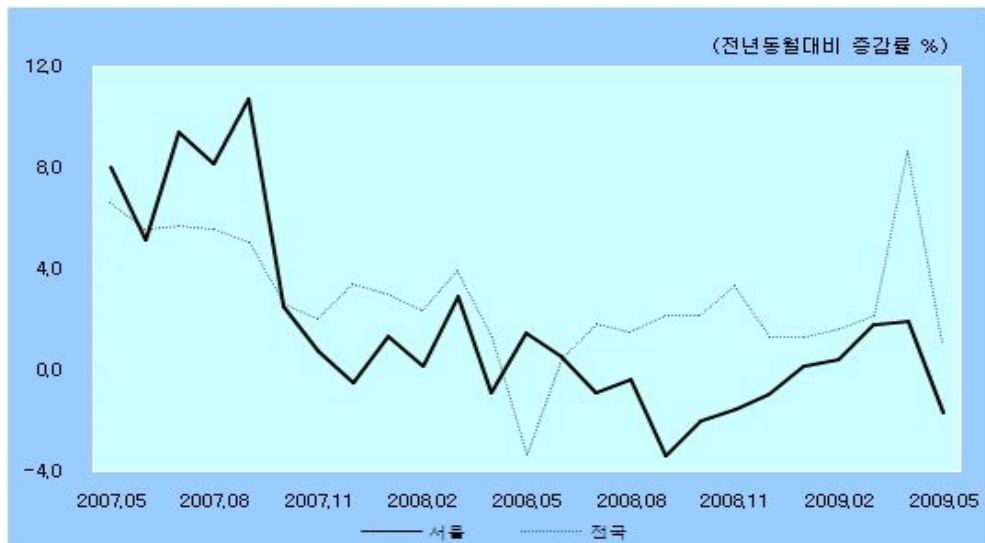
주: (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사무종사자,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증가, 서비스 종사,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감소

-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사무종사자 43천명(5.2%),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천명(0.3%)은 각각 증가하였으나,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25.5%),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139천명(-9.7%), 서비스·판매종사자 21천명(-1.7%)은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전년동월대비 각각 -1.1%, -2.7% 감소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32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62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14천명(-1.1%), 임금근로자는 102천명(-2.7%)이 각각 감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15천명(-1.4%)이 감소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2천명(0.9%)이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62천명(3.3%)이 증가하였으나, 임시근로자 86천명(-7.0%), 일용근로자 78천명(-13.4%)은 각각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54시간 이상 취업자 각각 4.7%, 2.8% 증가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9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8천명(-32.7%)이 감소하였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21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1천명(4.7%)이 증가
-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1~17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34천명(18.0%)이 증가하였으나, 18~35시간 취업자는 322천명(-46.6%)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중 36~53시간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52천명(5.8%)이 증가하였고, 54시간이상 취업자도 39천명(2.8%)이 증가
- 일시휴직자는 5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9천명(-26.8%)이 감소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6.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시간 증가하였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산업별	제조업	-4.0 (-1.5)	-15.3 (-0.7)	-13.5 (2.9)	-14.4 (-5.8)	-12.0 (11.6)	-20.3 (-9.0)	-15.5 (4.5)
	SOC 및 기타서비스업	0.4 (0.7)	0.8 (-0.9)	0.3 (-0.7)	-0.7 (-1.5)	-0.8 (0.4)	0.4 (1.6)	-0.3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1.3 (0.9)	4.2 (-0.6)	3.7 (-1.8)	5.3 (0.8)	3.8 (-0.5)	5.1 (2.5)	4.7 (0.4)
	도소매·음식숙박	0.8 (-0.4)	-1.5 (1.5)	-1.9 (-1.1)	-3.3 (-1.5)	-3.4 (0.4)	-1.6 (0.3)	-2.0 (-0.8)
	전기·운수·통신·금융	4.4 (2.5)	-1.0 (-2.0)	-0.6 (3.4)	-2.0 (-3.4)	-2.1 (-0.8)	1.6 (3.3)	-0.2 (0.6)
	건설업	-0.4 (0.8)	-2.4 (-7.8)	-4.5 (-1.5)	-14.8 (-8.1)	-9.4 (6.9)	-14.1 (-1.7)	-15.8 (-1.2)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7.2 (0.8)	3.6 (-0.1)	-2.2 (-0.3)	1.7 (1.2)	-1.2 (-1.5)	2.0 (2.4)	0.3 (-0.9)
	기능·기계조작·조립·단조종사	-5.4 (0.8)	-7.1 (-3.2)	-7.3 (-1.7)	-10.3 (-5.1)	-5.6 (6.5)	-11.4 (-3.4)	-9.7 (2.8)
	서비스·판매종사자	-0.6 (-0.2)	-1.2 (-0.7)	0.6 (0.4)	-2.3 (-2.8)	-4.6 (0.3)	-1.9 (-0.2)	-1.7 (0.0)
	사무종사자	-1.8 (0.2)	0.9 (1.4)	6.7 (0.8)	3.7 (-1.2)	5.0 (1.6)	5.4 (3.2)	5.2 (0.0)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1 (1.2)	0.3 (-0.7)	-0.2 (0.1)	-1.1 (-2.4)	-0.1 (1.9)	-1.5 (0.1)	-2.7 (-0.1)
	비임금근로자	-3.8 (-1.9)	-5.5 (-1.5)	-5.1 (-1.5)	-6.1 (-0.7)	-8.5 (0.8)	-4.9 (1.0)	-1.1 (2.0)

주: (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실 · 업 · 률 |

5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국대비 0.9%p 높음

### ■ 전국의 연령계층별 실업률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전국의 5월 실업자는 93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4천명(24.5%)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0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7천명(23.9%) 증가하였고, 여자는 33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7천명(25.5%) 증가
-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전월대비 보합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2% 전년동월대비 0.8%p 상승, 여자는 3.2%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
- 계절조정 실업률은 3.9%로 전월대비 0.2%p 상승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모든 연령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 또한 모든 연령계층에서 상승

### ■ 서울의 실업률 4.7%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전국(3.8%)대비 0.9%p 높음

- 5월 실업자는 24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천명(25.7%)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5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30.2%), 여자는 86천명으로 13천명(18.4%)이 각각 증가
- 실업률은 4.7%로 전년동월대비 1.0%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자는 5.2%로 전년동월대비 1.2%p, 여자는 4.0%로 0.7%p 각각 상승
- 서울시 실업률은 4.7%로 전국의 실업률 3.8%에 비하여 0.9%p 높은 수준

### ■ 서울의 고용률 58.4%로 전국의 고용률 59.4%보다 0.9%p 낮은 수준

- 전국의 5월 고용률은 59.3%로 전년동월대비 1.2%p 하락, 성별 및 모든 연령계층에서 하락
- 5월 고용률은 58.4%로 전년동월대비 1.8%p 하락
- 성별로 보면 남자는 69.4%로 전년동월대비 2.1%p, 여자는 48.0%로 1.6%p 각각 하락
- 서울시 고용률은 전국의 고용률(58.8%)에 비해 0.9%p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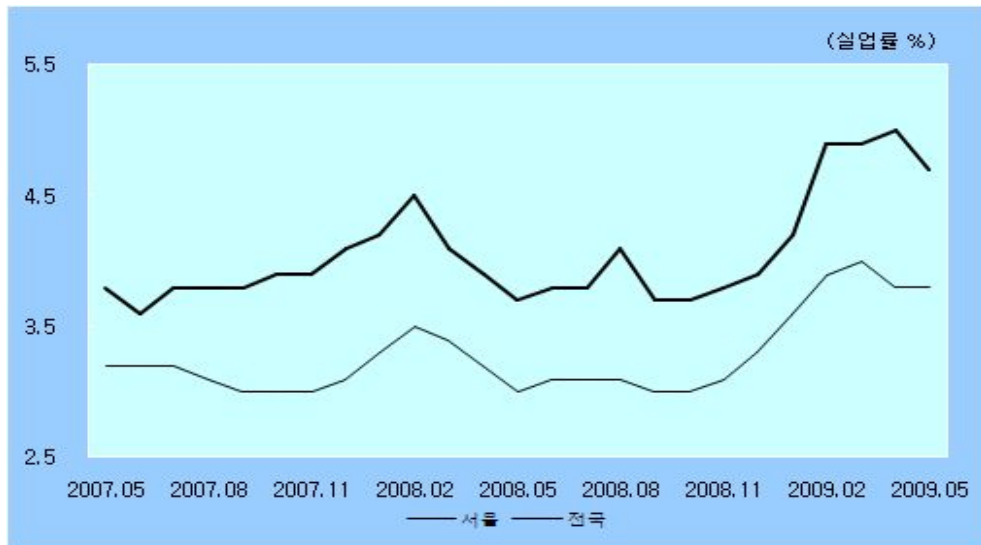


〈표〉 실업 및 고용 동향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5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실업률	전국		3.0	3.3	3.6	3.9	4.0	3.8	3.8
	서울		3.7	3.9	4.2	4.9	4.9	5.0	4.7
	성별	남자	4.0	4.8	5.2	5.9	6.1	5.8	5.2
		여자	3.3	2.6	2.9	3.5	3.4	3.9	4.0
고용률	전국		60.5	58.4	57.3	57.0	57.9	58.8	59.3
	서울		60.2	58.6	58.3	57.2	58.0	58.2	58.4
	성별	남자	71.5	68.9	68.7	67.5	68.2	68.5	69.4
		여자	49.6	48.8	48.5	47.3	48.4	48.4	48.0

자료: 통계청, 경인지방통계청



## | 건 · 설 · 경 · 기 |

2009년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큰 폭 감소

## ■ 4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큰 폭 감소(전년동월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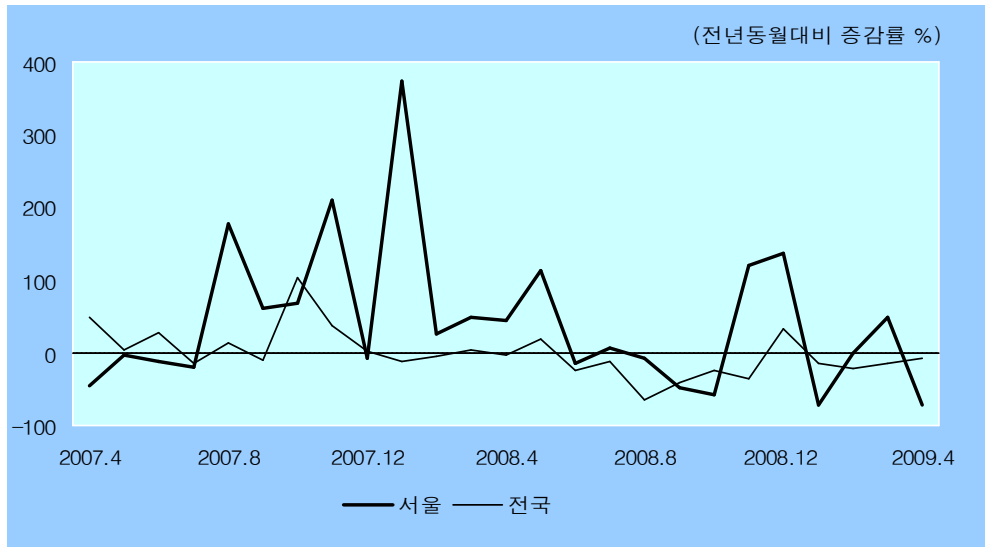
-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4,106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71.7% 감소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7조 2,491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8.0% 감소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5.7%를 차지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10.3%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85.5% 감소. 건축부문은 83.2% 감소하였고 토목부문은 2,728.5% 증가
- 공공부문은 송배전공사 등의 수주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공사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4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전국		7,880	21,721	5,333	4,879	7,354	7,249	-8.0	-1.4
서울		1,449	3,736	626	1,086	1,716	411	-71.7	-76.0
발주 자별	공공	135	678	266	195	502	149	10.3	-70.3
	민간	1,313	3,042	359	827	1,183	191	-85.5	-83.9
공종 별	건축	1,442	3,313	520	954	1,635	243	-83.2	-85.1
	토목	6	414	104	130	78	165	2,728.5	111.5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5월 서울 강남지역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 5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상승지역이 전월에 비해 크게 증가하며 호전되는 모습이나 매수 매도자간 호가 공백 확대에 따른 추격매수에 부진과 규제완화 보류에 따른 관망세로 전월대비 0.1% 상승에 그침
- 수도권(0.2%)의 상승폭이 확대되고 광역시(0.1%)가 6개월만에 반등한 반면 지난달 상승세를 보였던 기타지방(0.0%)은 보합권에 머무름
- 5월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의 장기평균은 봄 이사철이 마무리되는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0.1% 상승으로 나타났는데 올해도 0.1% 상승하며 장기평균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 ■ 5월 서울 강남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서울 강남지역(0.2%)은 하락지역이 없이 호전되는 분위기이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전월(0.4%)에 비해 축소되고, 강북지역(0.0%)은 매수세 부진으로 보합권에 머무름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전국		99.8	99.1	99.2	-0.6	0.1
서울		100.4	99.3	99.4	-1.0	0.1
아파트		102.1	99.0	99.2	-2.8	0.2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9.2	99.1	99.1	-0.1	0.0
	강남	101.7	99.5	99.6	-2.0	0.2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강북 지역 보험세 유지

-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은 지난달 6개월만에 반등한 후 보험세(0.0% 상승) 유지
- 강북지역에서는 마포구(0.5%)가 상암지구 133층 초고층 빌딩 건립 및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호재와 가재울·아현 뉴타운 이주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반면, 도봉구(-0.3%)는 급매물이 소진된 후 거래가 소강상태를 보이며 전월대비 하락 폭이 확대, 은평구(-0.2%)는 대형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하락 반전됨

### ■ 강남지역 전월대비 상승 폭 축소

- 강남지역은 0.2% 상승하여 전월(0.4%)대비 상승 폭 축소
- 강남지역에서는 하락지역이 없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모습을 보인 가운데 양천구(0.8%)가 지하철 9호선 개통 호재 및 목운초중학교 개교에 따른 학군 수요 증가로 저가 매물이 소진되며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영등포구(0.3%)도 한강변 초고층 개발 호재로 여의도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임
- 한편, 강남구(0.2%), 서초구(0.2%), 송파구(0.1%) 등 지역은 규제완화 보류 등 정책기조 변화에 따른 관망세 심화로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됨

### ■ 5월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 전월대비 상승

- 서울의 아파트 평당 매매가격(5월 29일 기준)은 1,760.05만원으로 전월(1,751.32만원) 대비 큰 폭 상승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을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234만원), 서초구(2,582만원), 용산구(2,521만원), 송파구(2,353만원), 양천구(1,897만원), 광진구(1,783만원), 강동구(1,766만원) 등 순으로 나타났음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 매매가격에 하회하는 구는 금천구(1,011만원), 중랑구(1,114만원), 강북구(1,120만원), 도봉구(1,124만원) 등 순으로 나타남

##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 5월 강남의 주택전세가격 전반적인 상승세 완화

## ■ 5월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3개월 연속 상승세 지속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국지적인 이동수요에 따른 공급불균형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월대비 0.2%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지속함
- 수도권(0.3%)과 기타지방(0.1%)은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광역시(0.1%)는 전월 보합(0.0%)에서 상승 반전됨
-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각각 0.3%, 0.1% 상승하고, 단독주택이 보합(0.0%)을 유지하며 전월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됨

## ■ 5월 서울 강남지역 전반적인 상승세 완화

- 강북지역(0.1%)에서는 성동구(0.5%)가 금호동 일대 재개발 정비사업 이주 수요 및 전반적인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으로 크게 상승하고, 광진구(0.5%)가 잠실 등 인근지역 물량 부족 및 가격 상승 여파로 높은 상승률을 나타냄.
- 반면, 은평구(-0.2%)는 단독주택 전세물량 증가로 하락 반전됨
- 강남지역(0.3%)에서는 전반적인 상승세는 완화된 모습이나 구별로는 서초구(0.7%), 강남구(0.7%)가 신규아파트 입주 마무리로 물량이 매우 부족한 가운데 일부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전세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상승세를 이어감.
- 강서구(0.5%)는 지하철 9호선 개통 임박에 따른 호재 및 화곡3주구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에 따른 이주수요 증가로 상승폭이 확대됨

## ■ 주요 상승지역은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 성동구, 광진구

- 강북지역에서는 성동구(0.5%)와 광진구(0.5%)가 크게 상승한 반면, 은평구(-0.2%)와 도봉구(-0.2%)는 하락하였음
- 강남지역에서는 서초구(0.7%), 강남구(0.7%), 강서구(0.5%) 등 지역이 크게 상승하였으며, 동작구(-0.1%)는 유일하게 하락한 지역으로 나타났음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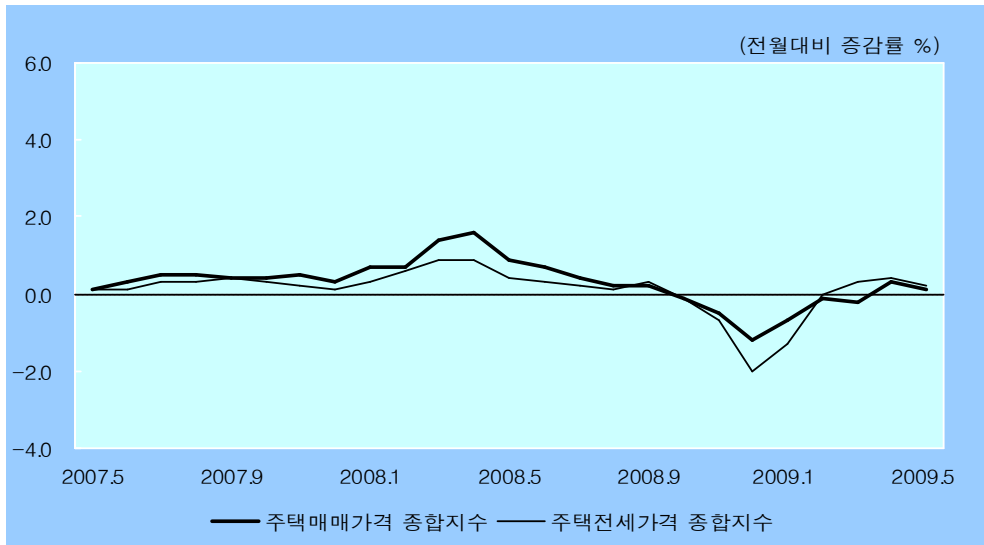
(2008.12=100.0, 단위: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4월	5월		
전국		100.3	99.1	99.3	-1.0	0.2
서울		101.9	99.5	99.7	-2.1	0.2
아파트		103.8	99.8	100.2	-3.5	0.4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100.6	99.0	99.1	-1.5	0.1
	강남	103.2	100.0	100.3	-2.8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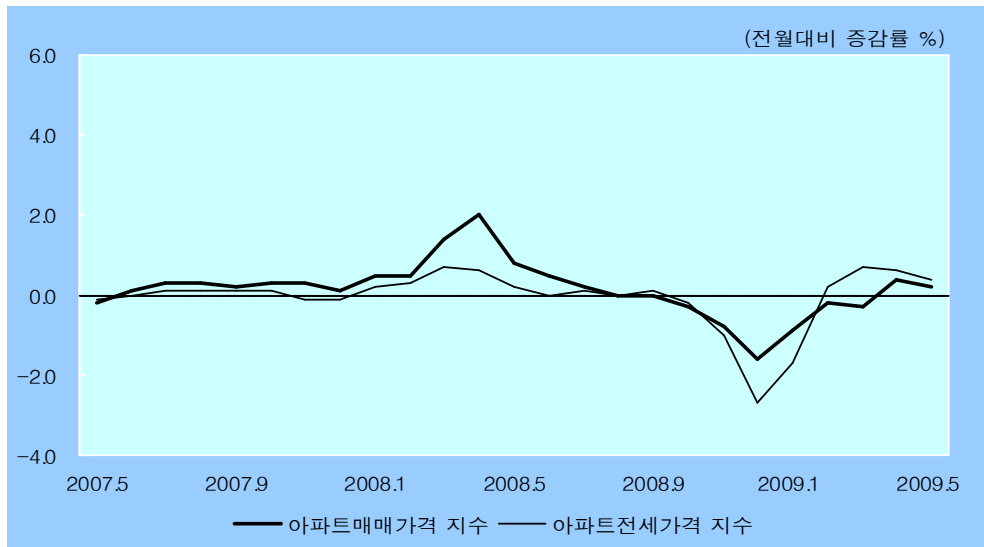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 상승세 지속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38.8%로 지속적인 상승세 이어감  
1월 38.2% → 5월 38.8%로 0.6%p 상승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5월 전국 평균 52.6%보다 13.8%p 낮은 수준이며, 전국과의 격차 전월(13.8%)의 수준 유지
- 지역적으로 보면 그 비율은 강북 41.5%, 강남 36.5%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0%p이며 지난 달(4.9%p)에 비해 격차 다소 확대. 지난 몇 달간 강남북간 격차는 줄어들었다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복하고 있음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금융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 지속

## 금리

## ■ 단기시장금리 사상최저 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 5월에는 글로벌 금융불안이 완화되고 경기회복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시장 상황의 전반적인 개선 추세가 지속
- 단기시장금리는 지난달 사상최저 수준을 경신한 이후 최저수준에서 안정세 지속

## ■ 장기시장금리 국고채와 회사채 엇갈린 움직임

- 국고채(3년)금리는 경기회복 기대,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영향으로 큰 폭 상승
- 회사채 금리는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비우량등급물을 중심으로 하락세 지속

## 주가

## ■ 5월 중 KOSPI 지수 연중 최고수준 상승

- 코스피 지수는 국내외 경기회복 기대, 원/달러 환율 하향 안정 등으로 5.20일 연중 최고수준(1,436p)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북한 관련 리스크 증대, 단기급등에 따른 부담 등으로 하락

(08년 10.24일 939p → 12월말 1,124p → 09년 4월말 1,369p → 5.20일 1,436p → 5월말 1,396p)

## ■ 5월중 외국인 투자자 순매수 지속

- 외국인 투자자 3월 중 순매수로 전환한 이후 4월에 순매수 규모를 크게 확대하였고 5월 중에도 지속적으로 순매수가 이어짐
- 외 국 인: 08년 10월 -4.9조원 → 11월 -1.9조원 → 12월 0.8조원 → 09년 3월 1.1조원 → 4월 4.1조원 → 5.1~ 6.9일 4.9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증감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금 리	국고채(3년)	5.46	3.44	3.78	3.69	3.76	3.83	0.07
	CD(91일물)	5.36	3.22	2.70	2.45	2.42	2.41	-0.01
	콜금리(1일)	4.97	2.43	2.06	1.77	1.80	1.91	0.11
	장단기 금리차 <sup>1)</sup>	0.42	0.22	1.08	1.24	1.34	1.42	0.08
주 가	KOSPI	1,846.80	1,156.37	1,139.75	1,140.45	1,322.10	1,400.50	78.40
	KOSDAQ	649.5	355.10	377.44	390.98	484.22	533.82	49.60
환율 (₩/US\$)		1,038.20	1354.68	1440.19	1,453.35	1,336.28	1,255.62	-80.66

주: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자료: 한국은행

## ■ 은행 가계대출 증가 폭 확대

- 주택담보대출은 건조한 증가세를 지속하며 지난달에 비해 증가폭 확대  
(2월 2.8조원 → 3월 1.9조원 → 4월 1.1조원 → 5월 2.8조원)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소비심리의 큰 폭 개선, 계절적 요인(어린이·어버이  
날) 등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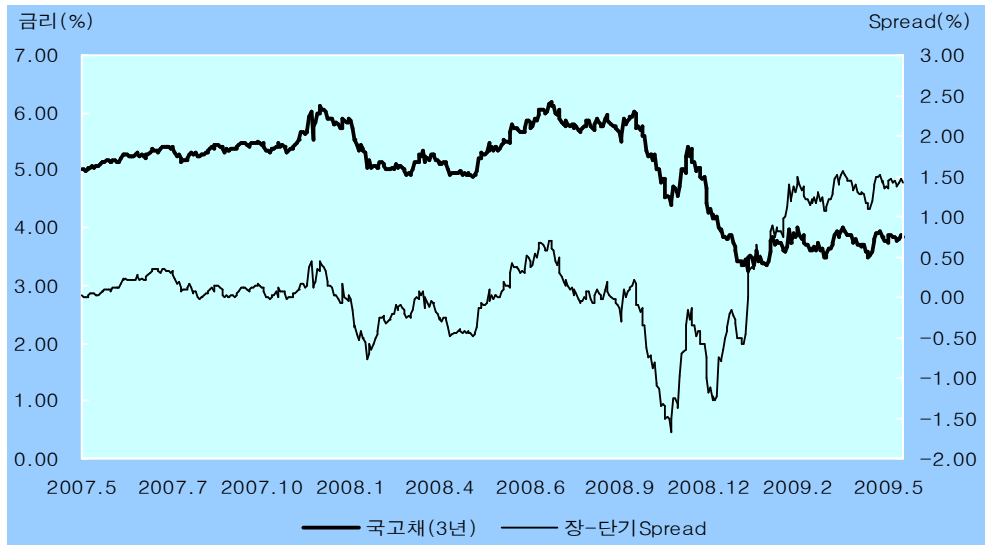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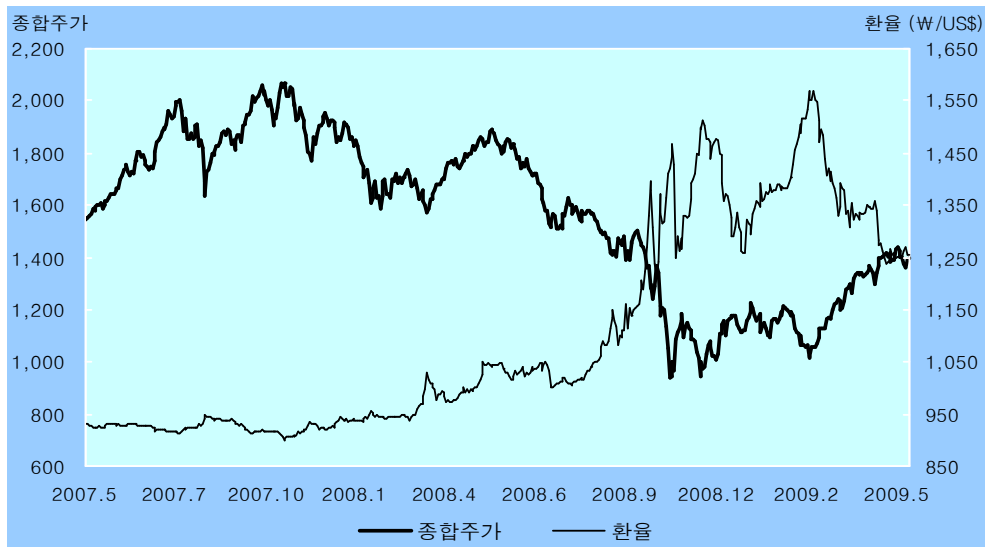
구 분		2008년	2009년					월말잔액	
		연중	1월	2월	3월	4월	5월	2009년	
								4월	5월
가계대출 <sup>1)</sup>		25.0	-1.7	2.8	1.9	1.1	2.8	392.7	395.5
주택담보대출 <sup>2)</sup>		18.1	1.8	3.3	2.5	1.2	2.4	248.5	250.9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6.8	-3.2	-0.3	-0.6	0.1	0.5	142.8	143.3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 4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잔액 전월대비 증가

- 4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223조 7,783억원으로 전월대비 6조 7,419억원 (0.55%) 증가
- 4월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501조 8,858억원 규모로 전월대비 4,418억원 (0.09%) 증가

〈표〉 서울시 금융기관<sup>1)</sup>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전월대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액	증감률
전국	예금은행	849,091.30	921,674.4	926,602.2	934,597.3	940,529.8	5,932.5	0.63
	비은행기관	266,942.60	284,912.6	282,712.9	282,439.1	283,248.5	809.4	0.29
	합계	1,116,033.90	1,206,587.0	1,209,315.1	1,217,036.4	1,223,778.3	6,741.9	0.55
서울	예금은행	367,426.60	410,284.8	411,650.6	416,295.3	416,976.7	681.4	0.16
	비은행기관	84,265.60	87,824.7	85,382.6	85,148.7	84,909.1	-239.6	-0.28
	합계	451,692.20	498,109.5	497,033.2	501,444.0	501,885.8	441.8	0.09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 4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전월대비 하락

- 서울의 4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63.4%를 나타내어 전월대비 하락(1월 63.1% → 2월 62.4% → 3월 63.6% → 4월 63.4%)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은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 지속(1월 89.5% → 2월 88.6% → 3월 90.1% → 4월 90.2%)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sup>1)</sup> 추이

(단위 : %, %p)

	2008년	2009년				전월대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전국	87.3	89.5	88.6	90.1	90.2	0.1
서울	58.8	63.1	62.4	63.6	63.4	-0.2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 창·업·동·향 |

## 4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 전국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증가

- 4월 신설법인은 5,038개로 전년동월대비로 5.2%(248개) 증가하여 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되었으며, 전월비로는 10.4%(474개) 증가하여 3개월 연속 증가
- 이는 대내외의 경기회복 신호 및 환율하락으로 인한 기업들의 원가부담 완화, 유동성 공급으로 인한 신용경색 완화,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에 따른 것으로 추정

##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증가

- 4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866개로 전월(1,559개)대비 19.7%(307개) 증가하였고 전년동월대비 10.6%(179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경기회복 신호와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

## ■ 서울 서비스업과 제조업 신설법인 수 증가

- 4월 중 건설 및 설비업의 신설법인 수는 111개로 전년동월대비 40.6%(76개) 감소
- 그러나 서비스업은 10.4%(141개), 제조업은 71.0%(103개) 크게 증가하여 서울의 신설법인수는 전년동월대비 10.6% 증가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790	3,664	4,227	4,564	5,038	474	10.4	248	5.2
서울	1,687	1,195	1,409	1,559	1,866	307	19.7	179	10.6
서비스업	1,352	937	1,095	1,231	1,493	262	21.3	141	10.4
제조업	145	193	197	232	248	16	6.9	103	71.0
건설 및 설비업	187	63	115	87	111	24	27.6	-76	-40.6

자료: 중소기업청

##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 전국 어음부도율 전월대비 하락

- 4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전자결제조정후)은 0.03%로 전월대비 0.02%p 하락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219개로 전월(223개)보다 1.8%(4개) 줄어들어 4개월 연속 감소

## ■ 서울 어음부도율 전월과 동일한 수준

- 4월 중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 유지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84개로 전월대비 8.7%(8개) 감소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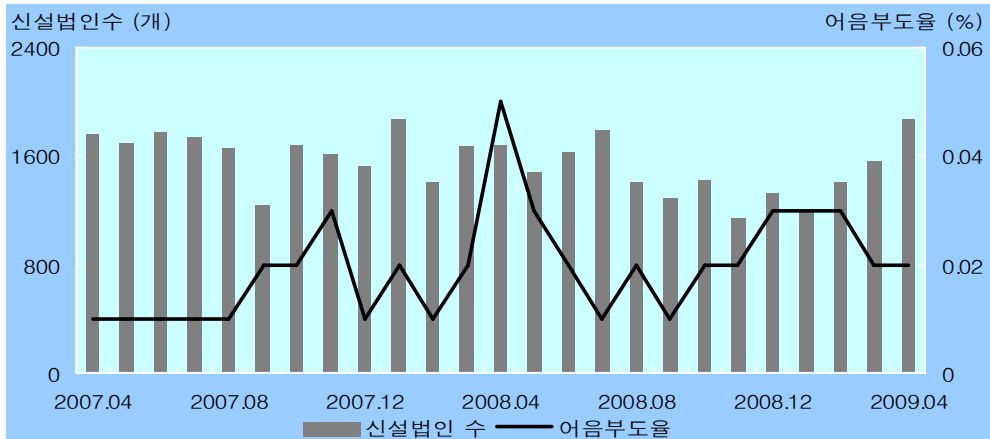
(단위: 개소, %, %p)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4월	1월	2월	3월	4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4	0.05	0.03	-0.02	-40.0	-0.03	-50.0
부도업체 수	234	262	230	223	219	-4	-1.8	-15	-6.4
서울 어음부도율	0.05	0.03	0.03	0.02	0.02	0	0.0	-0.03	-60.0
부도업체 수	79	104	73	92	84	-8	-8.7	5	6.3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자료임

자료: 한국은행



자료: 한국은행, 중소기업청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 신용보증공급 건당평균금액의 증가

## ■ 보증공급 건당평균금액의 상승

- 5월중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공급은 10,915건, 207,449백만원으로 전월 대비 건수 기준 31.0%, 금액 기준 26.3%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년 동월대비 건수 기준 251.1%, 금액 기준 287.5%의 증가율을 나타냄
- 지난 4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제2차 특례보증 집중처리기간 운용」 종료 후 전월대비 전체 보증건수와 금액규모는 감소하였으나, 「건당평균금액」은 증가추세로 돌아섬
- 이는 특례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인 일반보증에 대한 공급건이 늘어난 것에 기인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2008년	2009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3,109	2,336	4,749	8,873	15,828	10,915	-4,913	-31.0	7,806	251.1
금액	53,541	44,774	99,315	178,725	281,592	207,449	-74,143	-26.3	153,908	287.5
건당평균금액	17.2	19.2	20.9	20.1	17.8	19.0	1.2	6.7	1.8	10.5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전월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의 증가

- 5월 기준 「업종별 신용보증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전월대비 제조업 및 서비스업 비중의 합계액이 건수기준 2.6%p(29.6% → 32.3%), 금액기준 2.2%p(30.1% → 32.3%) 증가
- 그러나 음식·숙박업의 경우 전월대비 건수 및 금액기준 각각 2.7%p(21.8% → 19.1%), 1.8%p(19.8% → 18.0%)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음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894	4,083	2,080	2,623	1,235	10,915
비율	8.2	37.4	19.1	24.0	11.3	100
금액	18,883	80,449	37,434	48,052	22,631	207,449
비율	9.1	38.8	18.0	23.2	10.9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 소상공인에 대한 집중지원 지속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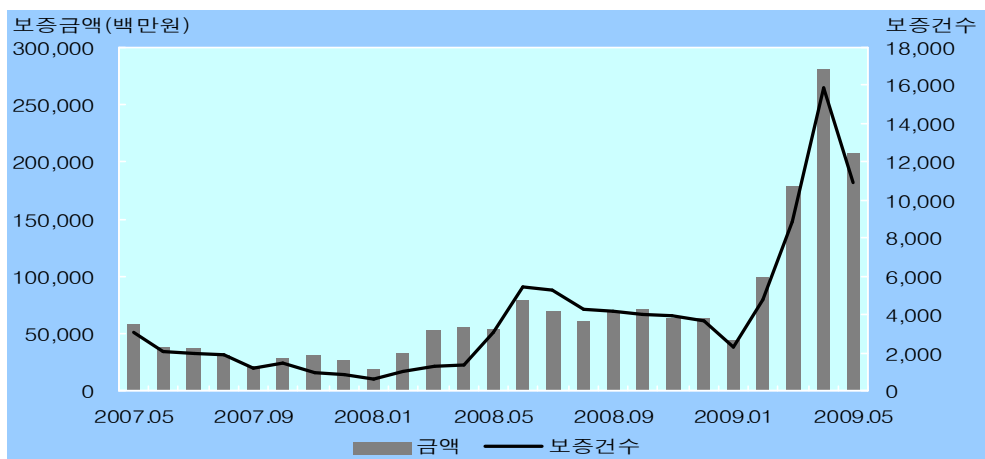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5월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을 살펴보면, 소상공인이 건수기준 97.9%, 금액기준 95.0% 신용보증공급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 이는 2009년 1월 대비 건수기준 1.9%p, 금액기준 7.3%p 증가한 것으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적 목적의 소상공인 집중지원의 결과로 풀이됨
- 다만, 전월대비 보증공급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2009년 4월 제2차 특례보증 집중처리 기간 운용」 종료에 따른 일시적인 현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9.03	2009.04	2009.05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8,552	15,431	10,689	-4,742
	비율	96.4	97.5	97.9	0.4
	금액	161,899	263,350	196,895	-66,455
	비율	90.6	93.5	95.0	1.5
소기업	건수	263	348	196	-152
	비율	3.0	2.2	1.8	-0.4
	금액	13,257	14,890	7,970	-6,920
	비율	7.4	5.3	3.8	-1.5
중기업	건수	58	49	30	-19
	비율	0.6	0.3	0.3	0.0
	금액	3,572	3,352	2,584	-768
	비율	2.0	1.2	1.2	0.0
합계	건수	8,873	15,828	10,915	-4,913
	비율	100	100	100	0
	금액	178,725	281,592	207,449	-74,143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 수 · 출 · 입 · 동 · 향 |

### 서울의 수출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 전국 수출입 4개월 연속 무역 흑자 달성

- 5월 전국의 수출입 무역수지는 50.6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여 4개월 연속 흑자 달성함. 사상 최고였던 지난달 흑자(57.9억 달러)보다는 7.3억 달러 감소
- 교역량(수출액+수입액)도 '09년 1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이번 달에 들어서는 지난달보다 6.9% 감소하면서 금년 들어 첫 감소세

#### ■ 전국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대비 감소

- 5월 중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28.5% 감소한 281.4억달러, 수입은 40.3% 감소한 230.8억 달러를 기록
- 수출은 그간 호조세를 보이던 선박류까지 감소하면서 환율효과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비해 22.7억달러(7.5%) 감소하였고, 수입도 유가원자재 하락 등으로 지난달에 비해 15.4억달러(6.3%) 감소

#### ■ 서울의 수출과 수입 전년동월 대비 감소

- 5월 서울의 수출은 22.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25.1% 감소하였고, 수입은 55.2억달러로 28.9% 감소

#### ■ 5월 기준 수출 1순위는 편직물, 수입 1순위는 반도체

- 서울의 품목별 수출의 경우, 편직물이 171,361천 달러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다음은 자동차부품, 반도체, 고무제품 등 순
- 서울의 품목별 수입의 경우, 반도체가 가장 많아 630,327천 달러에 달하였으며, 다음은 컴퓨터, 석유제품, 항공기 및 부품 등 순
-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금은 및 백금이고, 수입의 경우 플라스틱제품으로 나타남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	분	2008년	2009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9,383	21,368	25,458	28,068	30,418	28,148	-11,235	-28.5	-2,270	-7.5
	수입	38,704	24,724	22,529	23,782	24,630	23,088	-15,616	-40.3	-1,542	-6.3
서울	수출	2,976	1,991	2,235	2,586	2,609	2,229	-747	-25.1	-380	-14.6
	수입	7,760	5,050	5,149	5,555	6,282	5,517	-2,243	-28.9	-765	-12.2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5월		2009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편직물	203,054	25.0	171,361	-15.6
2	자동차부품	153,550	54.0	122,395	-20.3
3	반도체	188,942	-9.6	114,487	-39.4
4	고무제품	123,280	15.1	101,586	-17.6
5	합성수지	111,047	8.4	97,407	-12.3
6	컴퓨터	121,098	40.3	94,412	-22.0
7	무선통신기기	154,797	85.6	83,042	-46.4
8	금은빛백금	9,393	688.2	78,713	738.0
9	자동차	72,680	23.6	76,100	4.7
10	의류	95,553	3.0	68,758	-28.0
합계		2,975,928	30.6	2,229,348	-2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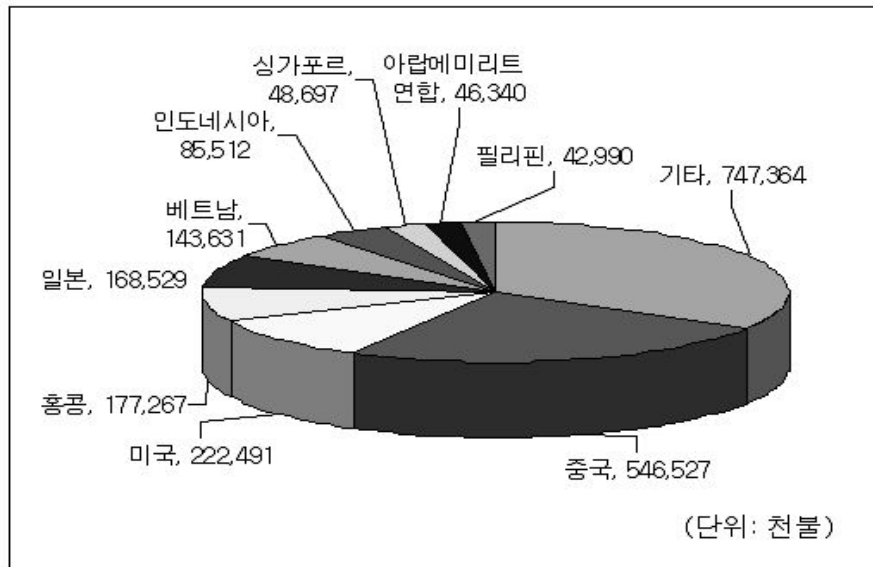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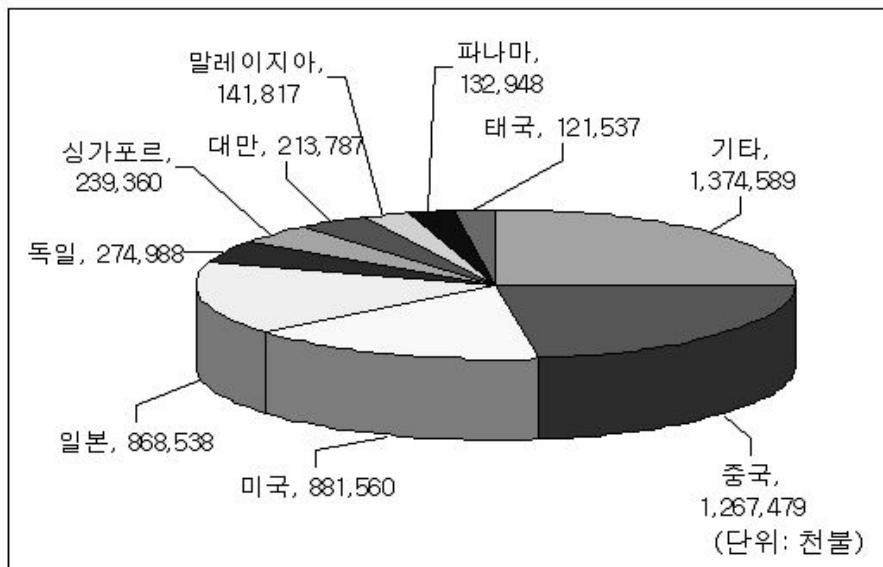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5월		2009년 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47,449	87.0	630,327	-15.7
2	컴퓨터	411,531	-30.3	356,103	-13.5
3	석유제품	227,275	66.4	258,477	13.7
4	항공기및부품	240,978	-38.5	236,531	-1.8
5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3,066	162.4	164,059	76.3
6	플라스틱제품	77,506	4.5	162,459	109.6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297,030	69.0	149,477	-49.7
8	의류	206,964	-7.2	127,826	-38.2
9	자동차	209,499	-21.3	124,509	-40.6
10	무선통신기기	133,094	42.7	120,211	-9.7
합계		7,759,818	29.8	5,516,603	-28.9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